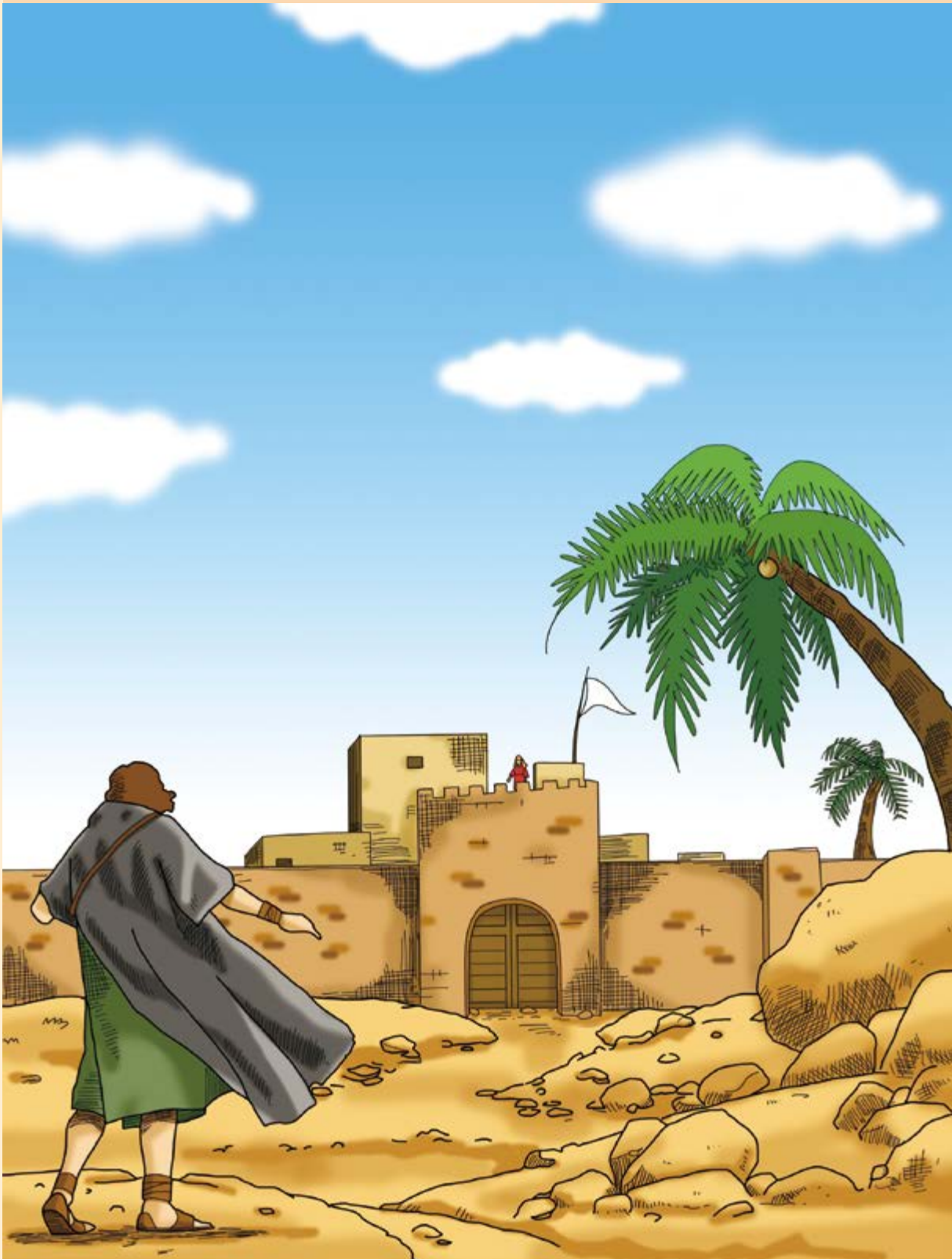


36 도피성

여호수아 20장, 신명기 19:1~13, 민수기 35장



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에게 대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'도피성'을 정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.

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중 6개를 ‘도피성’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살인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.”

이 말씀의 뜻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

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‘도피성’을 정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.

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일을 말하였습니다. 그러면 장로들은 그를 성으로 들여보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

성
경
암
송

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
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(요한복음 14:6)

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안전합니다.

만약 도피성 밖에 있다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등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

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세 성읍이 있고, 오른쪽에 세 성읍이 있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디서든지 빨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.

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.

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.

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

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.



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



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 어느 때의 일입니다.



어느 날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



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도끼에서 빠져 날아갔습니다.



그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.



죽은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.



나무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

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, 그래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인가요?

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니
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(요한복음 14:6)



예 화

도피성

도피성은 히브리어로 ‘아리 미클라트’라고 하는데, 그것은 ‘받아들이는 성읍’이라는 뜻입니다.

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세 개씩, 모두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.

여섯 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지역에 골고루 있었습니다.

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빨리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.

또 랍비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,

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반듯하게 닦여 있었으며,

‘도피성’을 가리키는 큰 표지판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.

이렇듯 도피성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.

부모님난

선생님난